

## 고속전철 저지운동 고조

**학교당국 대책위 - 구체적 대응방안 강구**  
**범동국 조직적 반대운동 본격화** [학생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주선노선(비교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동국차원의 반발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캠퍼스 통과지 중합대책위원회(위원장=민병천 총장)는 지난 10일 중합대책본부회의를 긴급히 열고 향후 지속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통합 학교당국의 기본방침은 경주캠퍼스를 인접해 통과하는 중합선의 비교노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범동국 △주요 정부관계 장관 및 정치권에 대한 정경서 제출 △경주시청, 경주시의회에 항의문 전달 △하내 교수회, 노동조합, 학생회차원의 진폭적인 항의방문전개 등으로 이를 통한 비교노선의 부당성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학교당국차원의 중합대책위 합성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회차원의 대응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고속철전 전선 백지화'를

위한 동불연 대책위원회(위원장=지성순)를 지난 7일 구성한 후 학내 선진진을 비롯 대 중력을 동원한 철도건설공단 항의방문 및 집거농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주캠퍼스의 경우 오늘(11일) 교수회·총학생회, 불교도연합을 중심으로 '경부고속철도 교내통과 저지를 위한 교직원·학생·시민 릴레이'를 열고 경주시의회 항의방문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지성순(철학)은 "이번 문제를 통해 6공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해내고 비교노선 철회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전선 백지화를 위해 범동국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캠퍼스 통과에 대한 학내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공단은 지난 4일 학교당국의 1차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통보해 왔다. 진정서의 주내용은 "현 비교노선이 경주캠퍼스지역에 근접(체육관 50m, 한밭병원 80m)해 통과, 이로 인한 소음·진동 및 전파방해가 예상되지만 환경영향평가

와 실시설계과정에서 피해방지 시설을 철저히 해 학교 및 의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이전의 입장과 별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에서 조사한 고속철도 공해관리자료에 의하면 전철통과시 평균 80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해 교육환경(기준 소음도=60dB)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명됐다. 경주캠퍼스의 예상되는 피해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환경 피해로 강의 진행 차질, 전자파로 인한 실험기기 및 컴퓨터 작동 불가능 등이다. 둘째 경주부속병원 피해인데 진료환경파괴, 진료기기의 기능장애로 인한 오진률의 증가 등이다. 셋째 시설피해로 진동에 의한 건물 균열, 고가 철도로 인한 조망차단 및 미관 훼손 등을 꼽을 수 있다. 끝으로 토지이용규제상의 피해인데 일본의 경우 선로중심으로부터 5백m이내는 토지이용규제 대상이 되어 향후 경주캠퍼스 시설의 90%이상이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 묶여 더 이상의 캠퍼스 조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총대위 실무추진

위원장 유광진(정치외교학) 기획조정실장은 "공단측의 경주선 노선안(비교노선)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후 지속적인 비교노선 반대운동 확산 운동을 벌여내 공단측의 노선안을 변경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시점 범동국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경주캠퍼스 통과 저지운동을 고려할 때 공단측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조인환 기자**



△고속철도 경주캠퍼스 통과지 대책위는 어제(10일) 총장실에서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경주부총장후보 김갑주 교수 선출

### 재단 수용여부에 귀추 주목

경주캠퍼스 부총장후보에 김갑주(국사학), 신현제(영문학) 교수가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경주캠퍼스 부총장후보선출을 위한 교수회(회장=박준학·행정학) 임시총회가 지난 4일 오후 4시 1백여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소강당Ⅱ(원효관4층)에서 열렸다.

이날 선거에 앞서 교수들은 부총장후보선출에 대한 재단·학교당국의 반대사태를 고려, 선거실시여부를 놓고 거수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즉 현시점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캠퍼스 통과, 임시준비등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선거연기안'과 부총장 임기만료 1개월전에 후보 2인을 선출하도록 규정된 교수회칙에 근거한 '선거실시안'을 놓고 거수찬반투표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선거실시안을 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 1인씩을 선임한후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인 무작위 투표로 실시된 부총장후보선출 1차투표

에서는 신현제(영문학) 교수 42표, 김갑주(국사학) 교수 36표, 박준학(행정학) 교수 5표, 장중식(고고미술사학) 교수·김시배(경제학) 교수 각 3표 등의 총11명이 선출됐다.

이어 교수회 회칙 제10조에 따라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서는 총90명이 투표, 김갑주교수 45표, 신현제교수 37표로 나타나 후보·2순위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경주캠퍼스 부총장후보선출을 둘러싼 재단·학교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교수총회를 거친 후보추진방식보다 간접인명을 바라고 있어 향후 교수회와 재단·학교당국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재단측의 이번 경주캠퍼스 부총장 직선후보추천에 대한 임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불교학술연구발표회 12일 동국관에서**

제18회 불교학술연구발표회가 한국불교학회 주최로 오는 12일 동국관(L 401)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날 발표회는 '자연환경과 불교교섭의 관계' '신라 의원의 유식사상' '원효의 공안과 화엄론교' 등을 주제로 목정배(불교학), 이만(경주캠퍼스 불교학), 신현숙(경주캠퍼스 불교학) 교수가 발표를 한다.

한편 발표당일에는 '한국불교학' 제17집이 출간될 예정이며, 발표회가 끝난후 제18회 정기학술회의가 개최된다.

▲김영태(불교학), 송석구(철학), 이봉준(경주캠퍼스 불교학) = 지난 7일 삼정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허용당 보수대의 재조명'에 관한 제1회 불교학술회의에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

구성되어 몇몇 총대 대의원의 사퇴결의에 따라 예상보다 중신위원이 다소 지연된 가운데 확정·공고된 이번 선거 일정은 다소 부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선거는 현시점 학내에서 일고있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주선노선안(비교노선)에 대한 반대운동을 비롯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93학년도 입시원서접수등 일정상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 우리 농민 살리기 운동

### 서충련 서울시민 걷기대회

서충련은 지난 7일 '우리농민 살리기 1차 서울시민걷기대회'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임을 비롯한 제 단체의 후원을 받아 담골공원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92년도 추곡수매(추곡가 5%인상, 8백50만석 수매)에 대응하여 △추곡가 15%인상, 수매 1천1백만석 정취 △농학연에서 사업의 총화 등의 계기로 삼았다.

또 오는 22일은 '농업·농학·농개발'을 위한 각 정당 대통령 후보 공청회가 전국농과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업학살에 관한 사항들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각종당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한다.

**출판부 신년달력 제작**

지난 5일 출판부(부장=강장섭)는 1993년 신년달력을 제작했다.

이 신년달력은 세무학사실정, 대학원·주요행정부서 전화번호가 수록돼 있으며 교내 서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김영태(불교학), 송석구(철학), 이봉준(경주캠퍼스 불교학) = 지난 7일 삼정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허용당 보수대의 재조명'에 관한 제1회 불교학술회의에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

▲김영태(불교학), 송석구(철학), 이봉준(경주캠퍼스 불교학) = 지난 7일 삼정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허용당 보수대의 재조명'에 관한 제1회 불교학술회의에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

▲김영태(불교학), 송석구(철학), 이봉준(경주캠퍼스 불교학) = 지난 7일 삼정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허용당 보수대의 재조명'에 관한 제1회 불교학술회의에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

▲김영태(불교학), 송석구(철학), 이봉준(경주캠퍼스 불교학) = 지난 7일 삼정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허용당 보수대의 재조명'에 관한 제1회 불교학술회의에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

▲김영태(불교학), 송석구(철학), 이봉준(경주캠퍼스 불교학) = 지난 7일 삼정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허용당 보수대의 재조명'에 관한 제1회 불교학술회의에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

## 제1회 동대문학상 작품 13일 마감

## 수계 대법회

정각원에서는 재단이사장 오복근 대 중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계(戒)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날에까지 전하여진 불교의 생활윤리로서, 올바른 생활의 근본바탕이며 불교의 이상세계인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동국인 가족들께서는 이번 수계법회에 동참하시어 자신의 귀의처와 삶의 지표로 확립시키기 바랍니다.

아 래

전 계 사 : 오복근 대종사  
일 시 : 불기 2536(서기1992)년 11월 20일(금) 오후 2시  
장 소 : 정각원 대법당  
수계접수  
① 기 간 : 1992년 11월 4일~17일  
② 방 법 : 전화 또는 소정양식에 따라 접수  
③ 장 소 : 정각원 사무실  
④ 문 의 : 전화 260-3015~16 268-2314

정 각 원 장

## 보리수

일찍이 부처님께서 살아 계신 인도에서는 일반인들도 먹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에 관한 문제가 최대의 관심거리였을 때에, 그들 속에서 음식물을 얻어서 생활하는 수행자들로서는 여간 고역이 아니었는가 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수행자에게 이 트기를 났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만을 먹으라고 권장한 다든지 먹은 양이 적다고 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그대로 부처에게 다시 청을 받아 먹을 때에는 여성법(餘食法) 즉 먼저 다른 도반에게 권하여 한 수가

릭이라도 먹게 한 다음에 먹어야 한다는 예법을 따를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 이 같은 연유에서 밥을 먹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도란비구의 예를 드는데, 본래 도란이란 짐승으로 면양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린 아

이와 같이 소리를 내며 먹이를 먹을 때에는 음식탕이 많이 절제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몸을 해쳐서 죽는다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선가(禪家)에서는 승려들이 아침과

저녁 두 끼만을 '일상식'으로 하고, 그 사이의 시간할을 달래기 위해서 간식을 버터라도 간단하게 찜을 찌는 정도만 섭취하라는 의미에서 마음에 찜을 찌는다는 뜻으로 이를 점심(點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나라 때에

에 그는 선사들과 담판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고있고 남방으로 가던 길에 먹을 파는 노인을 만나 점심을 매우 고차 했을 적에 그 노파가 묻기를,

"당신이 금강경을 잘 안다고 하니가 물었는데, 경에 보면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고 했는데 이데나 점을 찌려고 하니까,

하니, 선감은 대답치 못하고 그 길로 선사에게로 가서 선리를 참구하여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는 일화에서 스승이 가르쳐 준 수행자들의 일상생활을 엿보게 하는 좋은 말인 것 같다.

李 萬

## 점심(點心)

이와 같이 소리를 내며 먹이를 먹을 때에는 음식탕이 많이 절제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몸을 해쳐서 죽는다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선가(禪家)에서는 승려들이 아침과

# 성명서

## 신라 천년의 민족혼 훼손하고 교육시설 파괴하는 고속전철 결사 반대한다

문명은 문화의 파괴범인가. 인간이 과학을 기초하여 문명을 시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형성된 문화를 파괴하는 직태는 불식되어야 한다. 지금 가공할 문화파괴의 범법을 자행하려고 한다. 경부고속전철의 부설이 21세기 한국교통에 새로운 장을 여는데 우리는 쌍수로 환영한다. 그러나 원래의 노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대학의 교육시설을 파괴하면서까지 고속전철을 부설하는 것은 전부당 만부당할 일이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유네스코가 정신사적 문화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고속전철노선이 천년의 문화와 불교유적을 훼손하고 또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교육시설을 파괴하면서까지 노선을 획정하는 이유는 나쁜에 있는가. 과학적인 것은 새롭게 발명할 수 있는 지 모른다. 그러나 문화유산적, 역사적·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재창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 폭정의 시대인가. 엄연한 민주주의 시대다. 우리는 천년의 한국정신과 현금의 교육시설이 자리한 곳으로 우회하여 고속전철노선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동국대학교 재직동문과 학생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이러한 문화적 우민정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신라의 정의를 위하여 이자돈이 순교하였듯이 오늘날 제2의 이자돈이 순교하여 정부와 고속전철공단의 우행을 부처님의 위신력에 헌공할 것이다.

경고하오니, 어리석은 행태를 버리고 원래의 노선대로 부설하여 모든 불교인과 경주시민 그리고 동국인 모두가 찬의를 표하는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여범치 못하면 이자돈의 백희희생이 안전에 전가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1992. 11. 11

### 동국대학교 재직동문 일동

# “여학생김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 각종 상담-비디오상영-특강 등 실시

차기 겨울방학이 부는 동안의 기운을 따뜻하고 포근한 장소로 찾고자하면 사립대 열, 계산고시원 앞에 위치한 계산관을 들 수가 있다.

계산관은 본교 여학생들의 휴식처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곳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복지 및 편의사업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지면을 빌어 이곳에서 실시되는 행사 내용 및 편의를 주관하는 여학생부처장실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학생부처장실에서는 메카기초마다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취미·교양 특강을 실시하여 대학생활에 좀 더 폭넓은 여가 및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행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녀학생들의 신상문제 및 취업상담업무를 매주 화·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취업상담에 중점을 두고 많은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학년 여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한다.

계산관은 1층에는 여학생부처장실 및 편의실, 2층에는 휴식을 위한 옥상으로 분리되어 있다.

1층 편의실은 남녀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커피방(간단한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음), 타자 및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따뜻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또 한편에는 학생들이 건강을 위하여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전자테이블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늘 따뜻한 보리차도 준비되어 있다.

2층 옥아실은 1층과 달리 남학생금지구역으로 여학생들만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월·수·금요일 2시에는 여성문제 및 교양비디오 프로그램을 상영하여 공간의 휴식공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외에도

##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260-3491·2.

여학생전용의 사물함을 비치하여 여학생들이 원하는 기간 대여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복지사업 및 편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이용을 바라며 특히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깨끗이 하오면, 특히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문화적인 대학생이 되었으면 한다. 이곳은 우리의 방이니까...

**노정미**  
〈여학생김실 상담원〉

## 농촌현실 외면한 추곡수매가

원만한 거래를 접어들면서 싸늘한 한기뿐 아니라 농민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해 농민들의 한사탐으로 할말을 잃게 된다.

수매가 5%인상, 수매량 8백 50만석 그것도 2백50만석은 농민이 밭을 지고 수매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농업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를 묻고 싶다.

추곡수매 공동수매대책의 15%인상, 1천1백만석 수매안은 정부의 추곡수매안과 비교할때 결코 숫자놀음이 아닌 쌀값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으로 더욱 많은 양의 수매가 필요하고 재고량은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정부가 무상으로 쌀을 공급하여 주어 소비할 수 있다.

추곡수매 시기가 되면 생산비도 못지않고 농사를 지었다는 생각에 환승된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다면 현 정권은 스스로



왜곡보도에 불법추차 조대 사진 김병찬 <경성대 무역학과>

로 존재의미를 잃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을 살리는 길은 민족의 생명력을 지속시킬 수 있음을 법국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다가오는 대선 속에서 무엇이 농업을 위한 길인지를 학생들과 농민들의 눈높이, 세미나 등을 통한 연대로 투쟁역량을 구축하여 식이가는 농업문제를 뜨겁게 달구어야 한다.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수익을 되돌려 받고 쌀수입 개방에 대해 정부의 주체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수입으로 가득찬 농촌이 다시 풍요로워 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심각한 자세로 농촌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모두가 상기했으면 한다.

서병관  
〈농과대 일학과〉

## 조속한 일정 진행 촉구

제25대 총학 선거시기 결정을 위한 총투표가 지난달 31일 실시돼 3천여명의 학생들이 11월 실시를 원했으나 이후 제24대 총대의원회의 선거일정 논의가 마비되어 이에 대한 비판대조가 눈길을 끌었다.

제25대 총대의원회의 신임의장 정주영(아간 무역)은 6명 의회로 이 대조보는 “3천4백 61명이 참여한 총투표의 결과로 결론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24대 총대의원회의 총학위원회의 위

##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 문화관련기사의 다양화 꾀해야

지나호 동대신문은 그 동안의 비주체적 독자생활을 정산(?)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여러 기획기사가 있어 감사하다. 내가 독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생각되는 연세소설계 재래지 학생의 날 특집 '사건으로 본 80년 이후 학생운동사'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신문이 본교내에서 문화도움을 참여하는 공간이었는데 90년대에는 활발해지고 있는 여러 문화관련에 관한 기사를 여러모로 부족했었다. 앞으로 연세소설관 신설을 계기로 문화 또는 문화에 대한 지식제공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학생의 날 기획특집 '사건으로 본 80년 이후 학생운동사'에 대해 얘기 해보고 싶다. 대 학신문이라는 한계상 '80년대 학생운동사'라는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을 줄을 짐작하나, 대체로 내용이 빈약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남한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다 통하는 현 상황에서 90년대 학생운동이 절여야 할 길이나 동양의 운동 진로에 대한 모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 단지 여러장의 사진들만이 가득한 이 특집은 독

## 우리문화를 바로 찾고 만들자

언젠가 TV에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라는 광고멘트를 들은 적이 있다. 실로 공감 가는 문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요즘 대학가 주변에서 접하는 문화의 양태들은 가끔씩 나를 아연하게 만든다.

학교를 조금만 벗어나면 곳곳에 버티고 서있는 양담배 자판기하며 외국어 간판으로 채색된 원두 커피 전문점, 그리고 갈수록 불비기만 한다는 노래방과 당구장, 단연가는 호화술집들. 이런 조류속에서 우리들은 추세의 뿌리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우리모두를 더욱 심각하게

## 우리문화를 바로 찾고 만들자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이 회색과 무가치로 점철된 이런 문화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대학가 주변의 무분별한 외제 선호병과 무절제한 향락주의가 고유한 우리문화를 조금씩 잠식시켜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어느새 무디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일부 대학생들의 의식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문화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옛 복식을 권장하고 마당극·판소리 등의 우리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작업

## 동/문/칼/럼

즐거워했다)을 들기 못했다. 내가 동학과 신인연을 맺은지도 장성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다. 제수 끝에 83년 체육교육과에 입학해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이 산악부이다. 그러나, 산악부는 대학생활의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낭만의 공간은 아니었다. 최소한 처음의 인상은 그랬다. 엄격한 스포츠로서의 규율을 강요받았으며 그 때라 선배들의 폭력(?) 또한 겁을

## 만나고 싶었습니다

“복잡은 수렴 강력한 추진”을 모토로 제2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양원석(회계·3)군.

8대 동연에서 선전, 사회부장을 맡고있는 그는 집행부서 장 부족과 분과체계의 미약이라는 동연조직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선거에 임후보하게 되었다.

양군은 동연조직체계의 확립 분과체계의 강화에 대해 여론화와 분과제시관 설치, 동아리소식지 발간을 통한 동아리인의 의사수렴속에서만 가능하리라 보고있다.

동아리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공간문제에 한해 한달정도의 기교와 실습시간을 빼면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단련있는 연화원(학생회관 2층)을 동아리공간화 한다는 골자로, 제한된 공간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논의가 시급하다고 얘기한다.

양군은 9대 동연의 목표를 분과체계의 강화와 공간문제 해결로 동연의 제위상 확립에 두고 동연의 새출발을 기약했다.

또한 차기 동연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예비학교 및 환경주간행사 마련을 통해 신입생 동아리가입에 앞장서는 동변역의 동연을 기대해달라고 포부를 얘기한다.

“항상 3천동아리인의 곁에있는 동연장이 되겠다”는 양군의 열의 가득한 말속에서 9대 동연과 동아리인의 웃음의 한마당이 될 동연제가 기다려진다.

신동립  
〈불교대 불교학과〉

## 신인 동연회장 양원석(회계3)군

## 동/문/칼/럼

즐거워했다)을 들기 못했다. 내가 동학과 신인연을 맺은지도 장성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다. 제수 끝에 83년 체육교육과에 입학해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이 산악부이다. 그러나, 산악부는 대학생활의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낭만의 공간은 아니었다. 최소한 처음의 인상은 그랬다. 엄격한 스포츠로서의 규율을 강요받았으며 그 때라 선배들의 폭력(?) 또한 겁을

## 동학이여! 도전하라

해야 했다. 그러나, 차츰 세월이 지나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지도 안되고 밭이 움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한치레의 폭력(?)이 지나고 갖는 슬라지에는 온화하고 인정많은 선배들의 다독거림이 퍼져왔다. 나 또한 선배가 되어 후배들에게 따뜻한 매와 한없는 애정을 뽐낼 줄은 알았을 뿐이었고, 우리에게는 그런 매서운(?) 신뢰가 있었기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위협하고 여러 온 산행을 능히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

## 동학이여! 도전하라

위한 그작업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겠나. 특히 김진성 대원(전산과 83학번 신아부동)은 밤이 지새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나는 신생이에게 특히 동지적 애정의 깊이를 느꼈다.

나는 거듭되는 산행의 실패와 성공의 영욕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은 단련했다. 산은 내게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도 아니며 장미빛 낭만을 보장하는 아름다운 삶도 아니다. 그럼에도 산은 자나깨나 나를 일깨워주는 매아리 이 목숨을 보존하는

## 목 먹 골

- 축하합니다
  - 승호형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극예술연구회 일동
  - 사랑하는 후배 역교과19 미영이의 생일을 축하해요. 언제나 힘들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후배였고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 같이 하고자 하는 미요기(90)
  - 은수씨가 세상빛을 본 날이래요. 어둠속에서 탈출한 은수기를 축하해~
  - Three witches중 두사람이
  - 11월 12일 지교과 수진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영화과 정이(을 10월 28일) 열심히 생활하는 속에서 너희들의 진심을 찾길 바랍니다.
  - 백신167기 돌기
  - 9기 가장인 아라토만을 부르는 준이의 생일이에요. 잘나가는 9기 화이팅을 외치며 준이를 축하해요.
  - D.U.C.A 대모
  - Dear 화영, 너의 스무번째 Birthday를 정말/ 정말/ 축하? P.S: 부탁부림(을) / 지라!
  - 이뿐이들 (K.Y)
  - 11월 장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 푸름
  - 경현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 이스크라 정기국장
  - 노현, 계은이의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
-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과 92 제민아 /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대승이
  - 지원이와 성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많은 발전이 있기를.
  - 행정92 我知
  - 윤현이형 제9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걸 정말 축하해요.
  - 1학년 후배
  - 박창민의 학생회장당선에 축하드려요.
  - 기계공학과 R/C연구회
  - 공과대 학생회장 정·박현식부·김찬준의 당선 축하드립니다. 공대의 힘찬 출발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학생회가 되어주시지요.
  - 박병훈
  - 경영 가람체를 준비하느라 92학번 여러분 수고했네.
  - 92학번 범·용
  - 민족부에경당 시범단 사형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2기 짱
  - 東佛人 여러분 / 창립제 치르시느라 너무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정진합니다.
  - 교화부
  - 우리의 '그리고...'그림의 제6회 전시회를 지속합니다. 모두모두
- 그리고...
  - 제6회 부여누리제를 성공리에
- 축하합니다
  - 병단 선배님 / 형의 탄신일을

## 동학! 광장

-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과 92 제민아 /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대승이
  - 지원이와 성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많은 발전이 있기를.
  - 행정92 我知
  - 윤현이형 제9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걸 정말 축하해요.
  - 1학년 후배
  - 박창민의 학생회장당선에 축하드려요.
  - 기계공학과 R/C연구회
  - 공과대 학생회장 정·박현식부·김찬준의 당선 축하드립니다. 공대의 힘찬 출발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학생회가 되어주시지요.
  - 박병훈
  - 경영 가람체를 준비하느라 92학번 여러분 수고했네.
  - 92학번 범·용
  - 민족부에경당 시범단 사형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2기 짱
  - 東佛人 여러분 / 창립제 치르시느라 너무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정진합니다.
  - 교화부
  - 우리의 '그리고...'그림의 제6회 전시회를 지속합니다. 모두모두
- 그리고...
  - 제6회 부여누리제를 성공리에
- 축하합니다
  - 병단 선배님 / 형의 탄신일을

## 목 먹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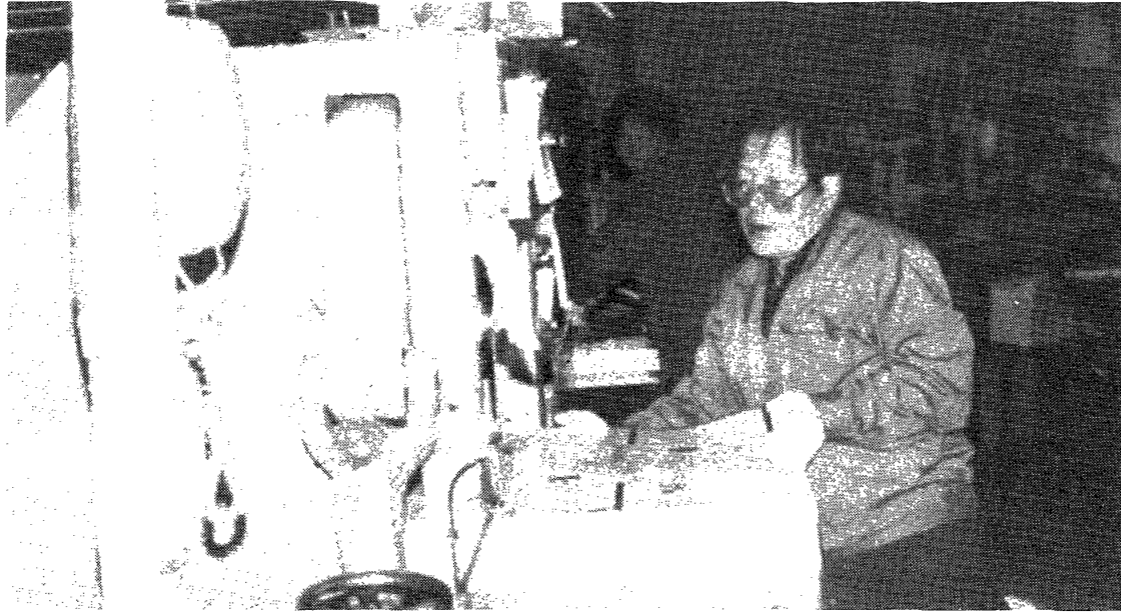
- 축하합니다
  - 승호형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극예술연구회 일동
  - 사랑하는 후배 역교과19 미영이의 생일을 축하해요. 언제나 힘들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후배였고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 같이 하고자 하는 미요기(90)
  - 은수씨가 세상빛을 본 날이래요. 어둠속에서 탈출한 은수기를 축하해~
  - Three witches중 두사람이
  - 11월 12일 지교과 수진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영화과 정이(을 10월 28일) 열심히 생활하는 속에서 너희들의 진심을 찾길 바랍니다.
  - 백신167기 돌기
  - 9기 가장인 아라토만을 부르는 준이의 생일이에요. 잘나가는 9기 화이팅을 외치며 준이를 축하해요.
  - D.U.C.A 대모
  - Dear 화영, 너의 스무번째 Birthday를 정말/ 정말/ 축하? P.S: 부탁부림(을) / 지라!
  - 이뿐이들 (K.Y)
  - 11월 장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 푸름
  - 경현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 이스크라 정기국장
  - 노현, 계은이의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
-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과 92 제민아 /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대승이
  - 지원이와 성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많은 발전이 있기를.
  - 행정92 我知
  - 윤현이형 제9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걸 정말 축하해요.
  - 1학년 후배
  - 박창민의 학생회장당선에 축하드려요.
  - 기계공학과 R/C연구회
  - 공과대 학생회장 정·박현식부·김찬준의 당선 축하드립니다. 공대의 힘찬 출발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학생회가 되어주시지요.
  - 박병훈
  - 경영 가람체를 준비하느라 92학번 여러분 수고했네.
  - 92학번 범·용
  - 민족부에경당 시범단 사형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2기 짱
  - 東佛人 여러분 / 창립제 치르시느라 너무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정진합니다.
  - 교화부
  - 우리의 '그리고...'그림의 제6회 전시회를 지속합니다. 모두모두
- 그리고...
  - 제6회 부여누리제를 성공리에
- 축하합니다
  - 병단 선배님 / 형의 탄신일을



전태일 열사 추모 22주기 특집

현장취재  
을지로 '인쇄골'

근로기준법의 무용지대, 을지로 '인쇄골'을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단지 농하고길에 들리는 운전기사이거나 종이를 가르길고 위태위태 대한극장앞 도로를 가로지르는 할아버지쯤 보이는 아저씨들을 볼 뿐이다. 1천여개 이상의 인쇄업소가 밀집한 을지로·충무로 '인쇄골'에도 22년전 한 젊은 노동자의 분신과 절규가 무엇을 의미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전태일 열사 추모 22주기를 맞아 인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쇄업 실태를 알아본다. < 편집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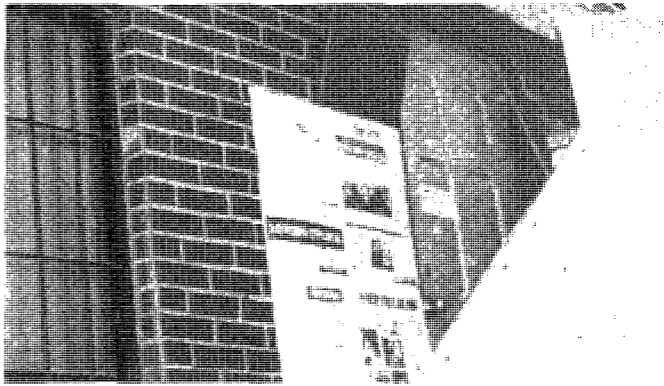


◇적원 10명만 되도 큰 사업장이란 인식이 있을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미흡·독립체이다.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이나 유급휴가 요구는 '꿈'에 불과하다. <사진은 중국형 맞은편에 있는 H산업사>

야근·잔업에 지쳐 '멍든' 몸  
대부분 영세...사내노조 없어

제법 큰 인쇄소라는 소개를 받고 찾아간 곳은 직원10여명이 일하고 있는 중국형 맞은편 H산업사였다. 인쇄 및 제본작업을 하는 이 사업장의 한 여직원은 을지로 주변에서 10여명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큰 사업장이라고 설명한다. 인쇄업의 실태 중국형 10월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등록인쇄소(구체적으로 읍)는 총2만966개다. 그러나 미등록인쇄소를 포함하면 6만여개가 넘는 것이라는데 중국형 문화공보실의 한 직원의 말이다. "인쇄업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죠. 다만 건축물용도 인허가, 공해배출시설 기준의 문제로 등록하지 않은 작업장을 하는 사업장이 많습다." 중국형 문화공보실의 말을 들으며 을지로·충무로 주변 인쇄업이 영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제본, 전산·사식 등을 포괄한 인쇄업소는 전양상(가주)엔, 스텝라극장주변을 중심으로 1천여개 이상 밀집해 분포해있다. 규모상으로는 구로공단이나 을산 현대자동차 이상의 노동자들이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근로조건개선투쟁이나 연대사업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을지로 '인쇄골'안에 사내노조가 거의 없고 인쇄직종이 세분화돼 복잡함으로써 스스로 인쇄노동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간 인쇄업소가 아니요. 열연 인쇄기도 있던 것 같은데, 그곳에 가보시죠." 직원3명이 스티커·봉투인쇄를 하는 한 사업장 직원의 말이다. 근로기준법의 무용지대 영세사업장, 미등록업소 등의 외적환경은 바로 을지로 '인쇄골'을 근로기준법의 무용지대로 만들어 버린다. "잔업, 야근은 어쩔 수 없어요. 촉박하게 일을 맡겨도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야근할 수밖에 없어요." "월·연차, 생리휴가요? 자라만 하나 비어도 작업진행이 안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최소한의 전산인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야 숙련공이니 월급은 많이 받지요. 그래도 막 들어온 견습공은 30만원선도 안돼요. 임금격차가 심하죠." 을지로 '인쇄골'의 읍세, 전산·사식, 제본 직종 노동자들의 말이다. 5인 이상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곳 인쇄업소는 예외이다. 우선 이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사내조직이 없고 영세사업장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노사관계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또 80여개로 세분화된 인쇄직종은 연대차원의 개선요구투쟁을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한다. 비록 1천여개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지만 하지만 종이를 판매하는 지업사, 전산·사식업체 여성노동자, 용셋숙련노동자마다 작업·임금조건이 서로 다르고 이의 개선의지 수준도 다르다. 야근·잔업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장에 주 44시간의 근무시간,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는 것만 부러다. 더욱이 열악한 노동환경이 가져다주는 직업병엔 대책이 없다. 자본생선의 무분화 작업으로 가장 시달리는 것은 전산·사식업체 여성노동자들이다. "장시간 컴퓨터만 치다 잠시 쉬려하면 허리, 어깨가 쑤신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S시스템 김인숙(22세)은 이곳에 들어온지 두달도 안 돼 안경을 써야만 했다고 한다. 그 외에 종이를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계속되는 작업으로 해서 손, 목, 어깨 등의 잦은 정련과 마비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그렇듯이 을지로 '인쇄골'역시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라기보다 자본생선의 한 부품으로 취급당하거나 강요받고 있다. 휴식없는 장시간노동과 단순한 작업, 그리고 인쇄업의 특수성인 일정한 작업량에 시달리다 보면 기계의 한 부품으로 느끼는 것이다. "사실 작업이 시달리다 보면 별 생각이 안들죠. 더군나 매일 작업이 반복되는터라 야근, 주말근무 때문에 친구들에게 부디 단 말을 지주들이요." 제본작업을 하는 한 노동자의 말이다. 노동자들의 인식 노면에도 인쇄노동자의 인식은 소극적이거나 소시민적인 면이 많았다. 이는 사내노조가 없어 작업환



근로조건 개선 투쟁에 바쁜 하루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

2층 단칸방에 세들어 사는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이하 인쇄노조)은 노동운동이 전반적 침체기라는 평가를 부정하며 요즘 각 사업장과 근로조건개선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에 바쁘다. 88년 1월 17일 창립, 같은해 4월 28일 노총 출판연맹 산하조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은 후 사별 노조건설사업에 주력했던 인쇄노조는 현재 형식상으로 노총 산하조직으로 존재할뿐 조직운영의 원칙과 내용은 서노협 산하조직이다. 다시말해 자율적인 노총의 활동과는 달리 열악한 노동환경, 근로·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이의 정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노조다. 교육부, 선전부, 조직부 등 7개 부서의 각분야 13명의 대의원, 위원장, 사무장 등 임원 5명으로 구성된 인쇄노조는 직종모임과 연대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인쇄노조는 부산, 광주 등 전국 4개 도시에만 건설돼 있고, 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인쇄노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흔히 '인쇄업'하면 읍세를 연상하기 쉬운데 인쇄업은 제본, 전산·사식, 제본까지를 포함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각 직종간의 인식차가

열악한 노동환경이 만드는 직업병

인쇄업에서 쓰는 전산사식은 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형편없이 낮은 임금은 둘째치고라도 전산을 해본 여성들은 누구나 느끼듯이 처음에 가졌던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여지없이 깨지는 현실앞에서 무력함을 가지기 마련이다. 소위 전자파가 나쁘다는 말을 들었으나 무엇이 어떻게 나쁘지도 모른다. 그저 야근과 일정한 지루한 물량에 시달리다 보면 자판기를 두들겨낼수록 힘이, 몸통이 야근 야근 굼벵이처럼 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가 자판기를 두들기는 것인데, 기계가 나를 두들기게 하는 것인지... 온 몸이 저러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도 그저 세 살 새 없이 원고와 화면을 번갈아가며 습관적으로 두들기기도

인간보다 대우받는 인쇄기

전산노동자 만성 VDT증후군 증세 해야 한다. 적어도 평균 하루에 14만타 이상 계속 반복되는 단순한 작업은 전산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깨가 결리고, 목·손목·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멍멍 붓고 눈이 시고, 머리가 깨질 것같이 아픈 경련을 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소위 VDT증후군의 증세인데, 인쇄업계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가속도를 붙여 우리를 더욱 더 VDT증후군의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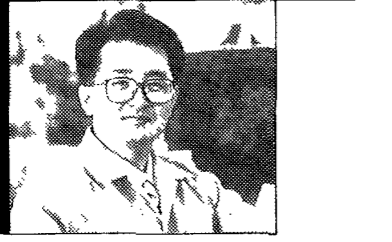
의 근육에 이상이 오는 '경련증상'에 시달리게 되며, 좀 심한 경우는 전산을 함으로써 오는 총체적 질병인 'VDT증후군'에 걸리게 된다. 인쇄업에는 산업재해가 많고대도 여기저기 널려 있다. 그 위험성에 비하면 전산사식에서 나타나는 직업병은 열악하다고 판단들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인쇄노동자들은 산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산재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전산사식을 비롯한 산재의 문제는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와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용숙 <서울인쇄노조 후생복지부장>

동막로

"어, 언뜻 들어 있네" "한결 보기 좋아졌네" 혼탁한 물만이 고여있던 팔경도 주위의 분수대 연못에는 얼마 전부터 비단잉어들이 노닐고 있어 산뜻한 느낌을 준다. 이 비단잉어들은 두달 전 팔경과 직원들이 10만원의 돈을 모아 50마리를 사다가 손수 기른 것이다. "학교 열쿨이라 할 수 있는 팔경도에 위치한 연못이 여름철엔 분수대 사용외에는 방치돼 미관 상 좋지않아 잉어를 키우게 됐다"는 직원들은 요즘 큰 골치거리가 생겼다. "가만 놔두고 보면 좋을텐데, 학생들이 연못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맹이를 던져 가뜰스 둘러보면 몇마리가 죽어있기도 한다"며 학생들의 예사롭게 행하는 행동에 비판을 가한다. 사실 몇몇 직원들이 휴일 낚시를 가서 잡은 잉어, 향이 8마리까지 '대식구'가 살던 연못에는 학생들이 버린 담배꽂초, 피자봉

짜사탕

지름으로 더럽혀진 물속에서 10여마리가 죽었다. 지난 9일 담배꽂초가 떠있는 연못에서 죽어버린 잉어를 건져내던 한 직원은 '잉어를 보호해서 학생들이 예사롭게 행하는 행동에 비판을 가한다. 사실 몇몇 직원들이 휴일 낚시를 가서 잡은 잉어, 향이 8마리까지 '대식구'가 살던 연못에는 학생들이 버린 담배꽂초, 피자봉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연구소 엔지니어부 설계 2과 이주한

이주한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늘하긴 했다. 통근버스가 사정없이 지나칠 무렵, 어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쁨"



복잡한 시내를 벗어난 통근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임무는 엔진설계와 제어부...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쁨'이란 글자가 머리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벤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벤엔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감이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을 가라앉히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는 낯익었던 현황판 수치를,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도 고쳐질 수 있으리라.

# “단결할 때만 승리한다”

## 92 대통령 선거

### 1) 87 경험이 주는 교훈

87년 6월항쟁의 승리, 그리고 7.8월 노동자 대투쟁, 민족민주운동전열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승리로 이끌면서 87대 선투법에 임하게 된다.

10월12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고 27일 국민투표는 93.1%의 찬성이라는 역대 국민투표 최고의 찬성률을 보이며 대통령직선제 실시가 확정된다.

### 87대선투쟁

그러나 10월28일 김대중의 신당창당과 대통령후보출마 공식선언은 국민운동전열의 후보전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민본련 중심의 김대중 비판적 지지는 서대원, 전대협 등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 10월31일 민본련은 전남 중앙위투표를 거쳐 '법국민적 대통령후보'로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적 지지를 주장하는 단체의 활동은 크게 군정중식을 위한 반노동자 투쟁과 국민운동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양 개성간의 상호비방 급지 및 대동단결 공동투쟁으로 나뉘었다.

전대협은 11월26일 전대협 5대 부총리(양심수 전원석, 박만, 파소기우 철배, 통일논의 보강, 군부중립, 광주형평회생자의 명예회복과 학살진상응징)을 김대중이 수용했다고 판단,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다.

반면 후보단일화를 주장했던 단체는 군정중식 단일화투쟁 국민회의(이하 국협)를 중심으로 제야의원, 13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본격화된다. 민본련의 '비판적 지지'결정에 반발하여 나왔던 카톨릭농민회의 선도적 투쟁에 힘입어 결성된 국협은 12월1일 연세대 별곡민결의대회에서 "군부중식의 의지로 불신 국민의 힘으로새만단 일하는 정부를 수립하자"고 국민적 참여를 호소하면서 후보단일화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12월12일 성명을 통해 국협은 "후보단일화에 실패했다. 국민승리에 가까운 쪽으로 투표할 것"을 호소하며 후보단일화투쟁을 마무리한다.

민중독자후보론은 제헌의회 그룹,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들은 6·29투쟁에 대해 "민중이 정치의 장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동시에 운동의 개량주의를 우려"한다고 했다. 독자후보론을 주장하는 단체내의 이견이 상당했지만 별CA결

는 선거시기의 과제로 △민중정당건설 △민중후보를 통한 정치세력화 △민중연립정부를 통한 군부독재중식을 설정했다.

11월11일 경인지역 민중정당 결성 및 민중후보·학생추대위원회의 구성에 이어 23일 본교에서 백기완 선생 선거운동 전국본부 발대식을 갖는다.

### 87대선경험이 주는 교훈

12월16일 투표결과를 이렇다. 총표자 2천2백85천164표(99.2%), 노태우 민정당 후보당선 8백28천2천7백38표(36.6%), 김영삼 28.1%, 김대중 27.0%. 87년 겨울과 88년 이후 87년 민중항쟁과 선거투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비판적인 진행했다. 87년 대선 이후 각단체들은 자기들의 후보전술을 비판하면서 이후 과제를 남겼다.

공통적인 문제제기와 이후 과제로 지적된 것이 △후보전술실천부족이었다는 점 △국민주의와 다른 차원의 선거운동 등을 들었다. 그리고 공동투쟁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모색이 적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다시 대통령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지금 국민민주운동전열에 요구되는 것은 '대동단결'이다. 이는 87년 대선투쟁의 가장 큰 오류이자 이후 풀어야 할 숙



명의 과제인 것이다.

### 92 대선예선

현재 전대협·전국연합의 '범민주단일후보안'과 학생연대 중심의 '민중대통령추대'는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리고 87년 투쟁에서 소홀히 다루어 진 선거참여 유도나 공동선거간시, 제도연분간시 운동은 재야 시민단체들의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후자는 후보전술이나 양 민내세력간의 활동양상은 87년과 다를 게 없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분석은 이번 92대 선이야말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성이 역대 어느때보다 크다는 점이다. 집권당의 내부분열, 경제상황악화, 미국의 개입영향력약화 등이 그 주 환경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시각은 지금 상태

이다.

▲올해 실제로 총액임금제가 관철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총액임금제가 의외상으로 80~90%정도 관철되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총액임금제가 관철되지 않았다. 이연계약을 통해 수당이나 기타 부분이 실제 1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연계약을 통해

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치교육으로 청년학생들에게 한다.

지난날의 투쟁을 보면 학생들이 노동자의 투쟁속에 힘차게 결합해 주었다. 진반적으로 투쟁이 어려워지는 정세속에서 노학연대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다.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떤 세력이 그 중심에 놓여지는가는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을 봐도 당연히 노동자들이어야 한다. 청년학생들도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노학연대가 학생운동속에서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재환 기자

### 92년 하반기 교지 분석

92년 2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현재, 각 학교의 하반기 교지들이 속속 발간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지를 발간한 학교는 서울지역에서만 21개 대학이며 본교 역시 지난 7일 특집호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 교지들의 특징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세에 맞추어 각각의 성향을 대변하는 기획을 담고 있는 것과 교지라든 '운동권의 대변지' '이론의 맹목'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들이다.

92·93년 권력재편기를 맞아 각각의 기획을 담고 있는 하반기 교지들은 중앙대 '중앙문화' 25집(다가오는 대통령선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숙명여



차에소, 제반 사회문제 일소, 민족지주권 쟁취, 조국통일의 완성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양대 한양 25호는 한양대 조

하는등 사회전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여대들의 교지는 김부남 사건과 김보은·김진관사건등

### 대선특집 다루면서 학내기획 강화추세

대 '속대학보' 31집(집중기획-현실의 인식과 실천을 위하여), 단국대 '단원' 22호(정치기획-자, 이제 민중의 깃발을 들자) 등 대선에 관한 정치성 기획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각교의 교지들은 소위 PD·NL로 나누는 학생운동전열의 정치적 성향으로 양분돼 각기 다른 대선에 관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예를 든 중앙문화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3당의 대선주자들의 장·단점을 다룬 '우리들의 대투쟁이 꼭 이루어야 할까'에서 이들이 대통령이 되려는 안보는 이유를 조목조목 서술하여 독자적 민중대통령추대로 민중정부를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교 교지 동국 30호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선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기획에서도 대선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비판하고 민중독자대선투쟁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새중대 세창 21호는 민주정부수립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개선점으로 지적된 소위 '대4명'을 진단

의 성취력사건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문제를 공동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각 학교 교지마다 눈에 띄는 특집기획들도 보이는데, 이것은 교지의 과거 '딱딱한 혁명성 논리'라는 다소 경직된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으로 비추진다.

서강대 서강 24호는 '캠퍼스 성문화는 최고학부인가'에서 대학생들의 음란한 대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 여성들의 생활회에 대해 꼬집고 있다.

이렇듯 각 학교 교지들은 과거의 것들과 비교해 볼때 진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발달운동하고 있다. 이것은 90년을 기점으로 변화해가는 학생들의 의식에 편승하는 것이며 교지도 매체로서의 자기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치화해가는 듯한 편집방식과 기획은 교지의 또 다른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양자하고 있는 듯하다.

<김대규 기자>

### ◇학생운동 전열의 대선방향

## 전대협 '범민주단일후보안' 확정 '민중대통령 추대' 학선본 활동 활발

1달남짓 보수정치권과 학생운동전열 모두에 커다란 시각변동을 가져오게 될 대통령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3당후보들 비탄한 각 정당 대통령후보들은 불변·탈변을 일삼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선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선을 준비하는 학생운동전열은 크게 범민주단일후보안과 독자후보론으로 나뉘어 각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만 청년학도의 대표적 조직인 전대협은 지난날 8·9일 양일간 대선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지지로 범민주단일후보안

을 전대협의 후보전술로 결정했다. 국민·신정당을 포괄해 후보단일화를 꾀하고 있는 이 후보안은 민주당까지 포함시키는 전국연합의 결정과 상이한 점을 띠고 있지만 무리없이 전국연합의 방침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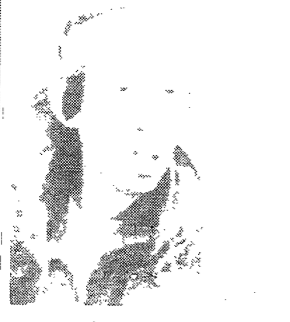
한편 중앙위원회 범민주단일후보안에 반대하는 24명의 대의원들이 민중독자후보추대안을 이견서로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독자후보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생조직은 지난날 9월 본교에서 발족식을 가졌던 민중대통령후보 학생선거대책본부(학선본)를 들 수 있다.

이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뜻을 같이하는 6개 학생정치단체 즉 진보학생연립추진위(진학련), 진보학생정치연합추진위(학정련), 전국학생연대추진위(학생연), 수도권민중회의 학생위원회(수민학위), 민중대통령후보추대를 위한 전국학생추진위원회(전학추), 전국학생정치연합추진위원회(전학원)로 구성된 공동 선거대책본부이다.

학선본은 지난 총선에서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중후보추대를 위한 학생선거투쟁연합(선투련)의 활동에서 나타난 조직적십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중 스스로 정치적

<김삼현 기자>



### 전노협 의장 단병호

## 산별노조 건설로 중앙조직 강화 자주적 단결

### 산별노조 건설로 중앙조직 강화 자주적 단결

전노협은 3년동안 민주노동운동에 전념해 왔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라는 틀속에서는 투쟁을 하는데 제한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점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별노조를 기본으로 해서 업종적 의를 강화, 확대시켜 나가면서 중앙조직을 꾸려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의 전노협의 입장과 구체적인 투쟁방침은 일단 전노협은 전국연합에 속해있기 때문에 전국연합에서 결정된 방침을 수용하고, 이후에 전개될 전국연합의 대선투쟁방침들을 기본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전노협은 대동단결 투쟁을 통해 반민중적 점을 폭로하고 규탄해내는 투쟁들을 전 노조전열과 연대해 투쟁할 계획이다.

▲노동법개정 투쟁에서 전노협이 가장 중점을 두고 관찰시키고자 하는 것은, 주요하게 관찰시키고자 하는 것은 자주적 단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했으나 대선때문에 내년 2월로 미뤄 놓은 상태이다. 만약 민자당이 제정권할 경우 노동법을 틀림없이 개정하려고 할 것인데, 이를 철저히 저지시켜 내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내는데 중점을 둘 것

이다.

▲올해 실제로 총액임금제가 관철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총액임금제가 의외상으로 80~90%정도 관철되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총액임금제가 관철되지 않았다. 이연계약을 통해 수당이나 기타 부분이 실제 1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연계약을 통해

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치교육으로 청년학생들에게 한다.

지난날의 투쟁을 보면 학생들이 노동자의 투쟁속에 힘차게 결합해 주었다. 진반적으로 투쟁이 어려워지는 정세속에서 노학연대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다.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떤 세력이 그 중심에 놓여지는가는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을 봐도 당연히 노동자들이어야 한다. 청년학생들도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노학연대가 학생운동속에서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재환 기자

이다.

▲올해 실제로 총액임금제가 관철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총액임금제가 의외상으로 80~90%정도 관철되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총액임금제가 관철되지 않았다. 이연계약을 통해 수당이나 기타 부분이 실제 1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연계약을 통해

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치교육으로 청년학생들에게 한다.

지난날의 투쟁을 보면 학생들이 노동자의 투쟁속에 힘차게 결합해 주었다. 진반적으로 투쟁이 어려워지는 정세속에서 노학연대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다.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떤 세력이 그 중심에 놓여지는가는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을 봐도 당연히 노동자들이어야 한다. 청년학생들도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노학연대가 학생운동속에서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재환 기자

# 品質·第一·主義



品質第一의 명예는 하루 아침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높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소중한 '자적'입니다. 칭찬받을 자격, 주목받을 자격, 신뢰받을 자격... 오뚜기는 좋은 식품, 맛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명예를 소중한 지켜왔습니다.

품질에서 앞서가며 우리 입맛을 우리 상표로 지키는 오뚜기-외국 브랜드의 마요네스, 케찹등과의 경쟁에서도 소비자는 변함없이 오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의 승리를 말해주는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작어도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우리의 자존심을 당당하게 새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뚜기인 것입니다.

品質第一의 명예, 그 하나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오뚜기 정신-젊은 여러분의 쾌거와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의 희망처럼 강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좋은 품질로 우리 상표의 우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오뚜기를, 젊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세요.

품질에서 앞서가는 오뚜기식품 오뚜기食品株式会社

그후로도 곳의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도박은 고개를 쳐들었고, 녀석은 아버지의 매질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얼마 후 집에서 가까운 수산업 고등학교에 입학한 녀석은 거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 패거리들과 어울려 담배와 술을 배우고, 밤이면 패짚밭에 잠을 설치다. 피클소신세를 지는 경우가 허다했으니, 그러다 절도와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불상사가 일어났기도 했다. 집안은 난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책가방을 들고 출출 쫓아다니며 동학교 길을 지켰고, 아버지는 밤이슬을 맞아가며 녀석의 방을 염망했다. 그러나 녀석은 조금만 감시망이 느껴졌다 싶으면 패거리들과 어울리고 술을 마셨다.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버려야 한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큰할아버지가 아직도 원기로 떠돌고 있기 때문이라며 치성을 다시 들이켜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후 녀석에 대해 무관심해 있었다. 그러다 방학이래도 되어 집에 있게 되면, 맑은 빛가 미꾸라지 새끼 같은 녀석 때문에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었다.

어느날 성산포 친구집을 찾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나는 음내까지

갔다. 그 주위의 여자들이 갈갈 웃음을 웃어왔다.

"바닷물이 싱거운 줄 알았어?"

녀석들이었다. 서울말씨를 쓴다고 끝을 비비 꼬아대는 품이 시비를 걸려는 김세였다. 나는 그들 가까이 다가갔다. 동생이 흥칫 놀리는 기색이었다. 그리고선 모래를 툭툭 차며 무덤덤한 말로,

"여긴 썩혀래 왔어?"

그러곤 아이들과 더불어 슬쩍 일어나 엉덩이를 털며 걸어갔다. 동생은 나를 힐끗거리며 달아나고 있었다. 마냥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발길질

고 있었다. 그 불빛에 녀석의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다. 눈두덩이 살짝 부풀어 오른 것이 또 싸움을 한 모양이었다. 녀석은 전혀 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듯이 남발을 꺼내 물고는 거꾸 연기를 내뿜었다.

"너 계속 이럴래? 나물 때문에 속 끓는 어머니 생각도 좀 해야할 거야. 그 손 좀 좋은 데 쓸수 없어? 너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잖아."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 보고 배라도 타래 땀수파? 허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려라네 해이지."

그러면 녀석의 눈을 피워올린 듯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다. 큰할아버지... 그런 큰할아버지가 어두운 고향(평) 속에 강겨울부트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새까만 쥐들이 뺨을 타고 오르고 어둠이 그를 포박한 고향속, 그 속에서 두손을 튼튼 채 죽음을 응시하고 있는 큰할아버지.

"없지 못해?"

형사는 눈을 부라리며 흥분한 동생을 자리에 앉혔다.

"집에 들어 온게 몇시쯤이야?"

"성이 일꺼우다."

형사는 동생에게 살인혐의를 두고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주춤거리다 가까이 다가들어 녀석의 형임을 일했다. 형사는 사람을 시켜 동생을 유치장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외자에 얽혀 형사는 사람을 압도하는 눈길로 나의 직업을 물었다. 형사는 대학생이라는 나의 대답에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어쩔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편이오?'라는 경멸조의 말을 흘렸다.

"이제 몇 시쯤 동생이 들어왔습니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음에 탁상시계는 한시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아먹었다. 만일 내가 시간을 잘못 밀어 녀석의 일리바이가 멍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붉은 햇바다 바깥 마른 입술을 뺏고 입술을 베회하였다. 형사의 머리 위로 벽시계가 시계바늘을 흔들대고 있었다. 두시, 아나 한시. 머리 속이 얼기설기 그늘이 끼어듯 혼란스러웠다.

"한시쯤 들어온 것 같습디다."

"정확해요?"

형사는 슬픈 사건을 잘 조리질해 온 경력을 말하듯 내 밑에 매듭짓기를 중용하는 눈치였다. 나는 한참만에야 결심하듯 '에'라는 말을 불쑥 내뿜었고, 형사는 능숙한 타자실력을 과시하며 조서를 작성했다. 파들거대는 타자 소리는 찬소로 경쾌했다. 그 순간, 나는 동생이 살인자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낮에 소식을 전해 듣고서부터 계속해서 제발 녀석이 그 '누명'을 벗어나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녀석이 정말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내가 물귀신이라...' '어쩔 녀석이 어쩔놈 미소로 지으며 자신의 종족을 감출듯이 내뿜던 말이 떠올랐다. 어릴적부터 데려온 매가 떠나지 않던 손으로 흉방물을 옮겨주던 녀석에 대해 가슴 한구석에 응크리고 있던 애증의 그림자가 기어오 자리를 차지하고 일어난 느낌이었다.

"뭇말전에 물귀신으로 일컫던 적이 있어 보셔..."

형사는 조서에 마침표를 찍으며 일과를 끝낸 안도감에 군두셨던 신경을 누그러뜨렸다.

"질요로 보시는 아무래도 자살입니다. 그런데 그 패거리들과 부모들이 학생 동생이 한 것이 아니고는 하는 후에... 예전부터 터진목은 여러 사람이 죽은 것일겁니다. 흔하디 흔한 살인사건이죠. 흔하디 흔한 살인사건이죠."

"제 큰할아버지도 터진목에

연재소설

터진목 두번째

을 하였다. 잠녀들이 까고 버린 검은 가시의 보랏빛 성계결집 더미가 발길에 채였다. 터진목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적 녀겨 짙는 녀석의 말이 몸서리쳤다.

"나는 배운 거라곤 썩박살에 도둑질 뿐이구나. 성처럼 잘나지도 못하고"

나의 주먹은 또다시 녀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겨냥했다. 그러자 녀석은 영저주춤 서 있던 돌담을 무너뜨리고 빛물에 젖은 돌맹이 하나를 주워 들었다. 살기가 흐르고 있었다. 내 눈은 여태껏 녀석에게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으로 커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녀석은 열게 흐르는 도랑물길에 무릎을 꿇었다. 땅바닥으로 돌맹이가 스프르 떨어졌다. 녀석은 꺼이꺼이 처절한 울음을 짓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다.

"잘났어. 성은 참 잘났어..."

동생은 너무나 가엾게 성난 눈길을 밑으로 내리깔고 나를 비아냥거렸다. 무언가가 녀석의 가슴을 집기질기 찢어 놓고 있는 듯했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산산하게 비가 쏟아졌다. 라디오에선 북태평양기단이 어둡고 하면서 장마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들에 일을 나가지 못한 고모가 수박 한 덩이를 들고 찾아왔다. 가족들은 수박 쪽을 배어 불러 후련지근한 날씨

를 맞았고, 콩밭에 잡초가 무더기로 자라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을 입에 담았다. 그러다 고모는 며칠전 오일장이 서는 음내에 나갔다가 패거리들과 어울려 오트바이를 타고 가는 녀석을 보았다고 했다. 녀석에게 기진맥진한 가족들은 녀석을 회색에 올리는 고모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를 보였다.

"그놈은 누굴 닮아 그런지. 쫄쫄..."

고모의 말소리는 비 속에 울

려져 갔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낚지 않아 꺼끌꺼끌해진 수염을 문지르며 말을 꺼냈다.

"성일이 젊었을 때 몸집을 그놈이 속해 달았어. 파죽하고 함께나 쓰는 품도 영락없이 지큰하루방이주."

할아버지는 또다시 당시 형님을 그리고 있었다. 큰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동생에게서 씨의 대를 받을 발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언제나 녀석을 혼저질 한번 내는 일이 없이 얼고 달래기에 급급했다. 언제부터가 할아버지는 어릴 때 보았던 그 빛바랜 형제 사진을 베갯머리에 두고서 가끔씩 빠질듯 들여다 보곤 하였다.

"우루루 파죽. 하늘을 받들고 싶던 물피마물은 천둥벼락소리가 되어 오슬오슬 떨어졌다. 전회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어머니가 부르나래 내게 달려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오 녀석이 경찰서에 있던 햄?"

"나는 어머니의 당혹스런 눈빛에 삼켰다.

"터진목에서 사람이 죽어선다. 니 동생 친구라네구나." 어머니는 떨쳐 주지 않았다. 항상 조미조미하게 서 있던 어머니가 가슴에 날벼락을 맞고 철퍼덕 쓰러진 것이었다.

나는 곧 버스를 타고 서귀포경찰서를 향했다. 심장이 간질간질하고 파다거렸다.

녀석은 고개를 꼭 숙인채 조사를 받고 있었다. 녀석의 뒷덜미가 짧게 깎은 머리를 빛내며 울절거렸다. 아예 터진목에서 보았던 녀석들이 가장자리에 놓인 소파에 앉아 나를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형사는 신경질 섞인 목소리를 동생에게 던지며 타자기를 때리고 있었다.

"왜 씨웃어?"

"성터러 어쨌 못했다고 욕을 하길래. 성이 나한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오가리만 헌대미심."

동생이 내 얘기를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말도 죽어? 이 세가?"

"난 안죽었습디다."

형사는 귀를 바라보는 수교 양이마냥 편지위를 넘겼다. "삼삼이가 나간 후 심판 좀 지나서 나들이 나왔습디다? 그리 고선 터진목까지 따라가 술에

그렇다면 녀석을 피워올린 듯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다. 큰할아버지... 그런 큰할아버지가 어두운 고향(평) 속에 강겨울부트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새까만 쥐들이 뺨을 타고 오르고 어둠이 그를 포박한 고향속, 그 속에서 두손을 튼튼 채 죽음을 응시하고 있는 큰할아버지.

"없지 못해?"

형사는 눈을 부라리며 흥분한 동생을 자리에 앉혔다.

"집에 들어 온게 몇시쯤이야?"

"성이 일꺼우다."

형사는 동생에게 살인혐의를 두고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주춤거리다 가까이 다가들어 녀석의 형임을 일했다. 형사는 사람을 시켜 동생을 유치장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외자에 얽혀 형사는 사람을 압도하는 눈길로 나의 직업을 물었다. 형사는 대학생이라는 나의 대답에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어쩔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편이오?'라는 경멸조의 말을 흘렸다.

"이제 몇 시쯤 동생이 들어왔습니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음에 탁상시계는 한시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아먹었다. 만일 내가 시간을 잘못 밀어 녀석의 일리바이가 멍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붉은 햇바다 바깥 마른 입술을 뺏고 입술을 베회하였다. 형사의 머리 위로 벽시계가 시계바늘을 흔들대고 있었다. 두시, 아나 한시. 머리 속이 얼기설기 그늘이 끼어듯 혼란스러웠다.

"한시쯤 들어온 것 같습디다."

"정확해요?"

형사는 슬픈 사건을 잘 조리질해 온 경력을 말하듯 내 밑에 매듭짓기를 중용하는 눈치였다. 나는 한참만에야 결심하듯 '에'라는 말을 불쑥 내뿜었고, 형사는 능숙한 타자실력을 과시하며 조서를 작성했다. 파들거대는 타자 소리는 찬소로 경쾌했다. 그 순간, 나는 동생이 살인자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낮에 소식을 전해 듣고서부터 계속해서 제발 녀석이 그 '누명'을 벗어나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녀석이 정말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내가 물귀신이라...' '어쩔 녀석이 어쩔놈 미소로 지으며 자신의 종족을 감출듯이 내뿜던 말이 떠올랐다. 어릴적부터 데려온 매가 떠나지 않던 손으로 흉방물을 옮겨주던 녀석에 대해 가슴 한구석에 응크리고 있던 애증의 그림자가 기어오 자리를 차지하고 일어난 느낌이었다.

"뭇말전에 물귀신으로 일컫던 적이 있어 보셔..."

형사는 조서에 마침표를 찍으며 일과를 끝낸 안도감에 군두셨던 신경을 누그러뜨렸다.

"질요로 보시는 아무래도 자살입니다. 그런데 그 패거리들과 부모들이 학생 동생이 한 것이 아니고는 하는 후에... 예전부터 터진목은 여러 사람이 죽은 것일겁니다. 흔하디 흔한 살인사건이죠. 흔하디 흔한 살인사건이죠."

"제 큰할아버지도 터진목에

로이드

김선경 <법정대 법학과 교수>

두시간 계속 강의중 쯤 쯤 내는 3분간의 짧은 '차마시는 시간'은 내게는 더없는 여유이고 굳어진 습관이 되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학생이 뺨이다 준 한잔의 커피를 들다가, 필자는 갑자기 커피와 팔레타를 뱉 수 없는 인연을 지닌 한 인간 로이드가 생각났다.

대학시절 법사에서 로이드의 이름을 처음 발견하였을 때, 나는 그가 영국의 대법관 정도 지냈거나 런던대학의 법학교수쯤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이라고 내 편향대로 치부해 버렸다. 그후로도 그의 이름 그대로인 법률이 눈에 띄었고 그의 이름을 빌린 판결집이 속속 나오고 있음을 보면서 또 그의 이름을 단 단계를 지금도 전세계 보행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러한 헤아림은 확고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멋대로의 착각에서 벗어나 정작 내가 그에게 급작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끝내 좋아하게 된 것은 그가 테일즈강변 타우어스트리트에 있는 어느 다방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이다.

원래 어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경우가 지주 있으므로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를 잘 알지 못하는 필자가 단순하게 그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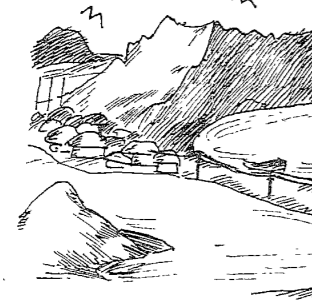
우선 그는 조그만 커피하우스의 주인이었으나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고 열심히 봉사하는 기풍에 매달려 그 생애를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다들 그를 깊어지고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상을 빈곤하게 된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사회의 병적 경향속에서 대학사학과로 크게 빛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로이드는 없지만, 우리는 로이드의 커피값을 느끼며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전통관 밖으로 가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서 돌아서왔습니다." "난리 때 그랬나 보지요?" "그때는 큰할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잔뜩 호기심이 나는 모양이었다." "에에, 누명으로 터진목에서..." "나는 누명이란 말을 똑똑 끊어 받았었다. 그리고 말끝을 흐렸다. 후시시, 아득한 옛일을 꼬꾸리 잠야 동생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을까 하는 조바심이 서렸기 때문이었다." "학생은 터진목이 총살터였다. 그 말이요?... 실감 가까이 오자마자 죽어간 시절이었으니... 그런 곳이 여러군데 되지."

형사는 혼자소리를 했다. 하늘이 울던 역수같이 내리는 빛소리가 컷바퀴를 뱅뱅고만 있었다. 바닷물 속에서 큰할아버지 시신을 건져내는 할아버지의 전술하는 손마디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총살터라니,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태 입을 다물고 쉬쉬거리고만 있었던 것이다.

오대현 <문과대 국문과>



총살터 터진목 시내

절이갈 작정을 하였다. 바람을 안은 일출봉과 한라산이 아릿하게 다가오고 첫부딪길 같은 그들아는 앞에 서서거리고 있었다. 성산포는 음내의 소풍을 길고 가나다란 목으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다를 양옆에 둔 무언저리를 언제부터가 터진목이라 불렀다. 한쪽에는 페레티미가 쌓여 새하얗게 말라 있고, 다른 한쪽에선 잠수복을 입고 태와을 낀 잠녀가 불길기 한창이었다. 관객들은 터진목 부근을 어슬렁 거렸다.

잘 차려 입은 관객들의 애교스런 표정을 보려는지 학생인 듯한 아이 넷이 터진목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뒷새를 부릴 양일까. 나는 짐짓했다. 동생이 그들 속에 끼어 있었다. 관공을 온 이들이 웃고 출기는 모습을 그들은 공인거리며 지켜보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낮은 돌담을 의지하고는 동생을 주시하고 있었다. 녀석은 언저너에도 심한 슬픔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나는 피도투박이 녀석을 데리고 돌아갈 공리로 서너발치쯤 떨어져 해안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도 관공들이 서서거렸다. 빈바지 차림의 여자가 잔뜩을 맞고있는 그 서늘에 괜히 눈을 일그러뜨

이른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패거리들을 대만에 걸가보 놓아줄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검은 입술에서 내뿜는 욕설과 비아냥거림은 선생의 미친한 권능으로는 감당해내기 힘든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안개비가 내렸다. 물피마물은 희뿌연 안개비에 싸여 울썩느러웠다. 나는 동생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녀석은 왜 그렇게 뼈뺏하게만 변해 가는지. 터진목에서 있었던 일은 하얀 명주옷에 퍼렇게 들뜬 뺨가 불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정이 훨씬 지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린 배를 채우려는 녀석의 움직임이다.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인지 그날따라 별나게 달그락거렸다. 부엌으로 갔다.

"야 이 자식아, 지금이 몇인데 밥이야?"

녀석은 말이 없었다. 꾸역꾸역 밥알을 꿀리고 있을 뿐이었다. 머리는 안개비에 젖어 윤기를 내고 있었고 얼굴은 별쨍게 달아올라 있었다.

"부스스스 하다가 들어왔어?"

"밥이나 먹고 복습서."

녀석은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머뭇머뭇 서 있는 가로동이 안개비가 내리는 밤을 게슴츠레 밝히

고 있었다. 그 불빛에 녀석의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다. 눈두덩이 살짝 부풀어 오른 것이 또 싸움을 한 모양이었다. 녀석은 전혀 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듯이 남발을 꺼내 물고는 거꾸 연기를 내뿜었다.

"너 계속 이럴래? 나물 때문에 속 끓는 어머니 생각도 좀 해야할 거야. 그 손 좀 좋은 데 쓸수 없어? 너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잖아."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 보고 배라도 타래 땀수파? 허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려라네 해이지."

그러면 녀석의 눈을 피워올린 듯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다. 큰할아버지... 그런 큰할아버지가 어두운 고향(평) 속에 강겨울부트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새까만 쥐들이 뺨을 타고 오르고 어둠이 그를 포박한 고향속, 그 속에서 두손을 튼튼 채 죽음을 응시하고 있는 큰할아버지.

"없지 못해?"

형사는 눈을 부라리며 흥분한 동생을 자리에 앉혔다.

"집에 들어 온게 몇시쯤이야?"

"성이 일꺼우다."

형사는 동생에게 살인혐의를 두고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주춤거리다 가까이 다가들어 녀석의 형임을 일했다. 형사는 사람을 시켜 동생을 유치장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외자에 얽혀 형사는 사람을 압도하는 눈길로 나의 직업을 물었다. 형사는 대학생이라는 나의 대답에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어쩔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편이오?'라는 경멸조의 말을 흘렸다.

"이제 몇 시쯤 동생이 들어왔습니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음에 탁상시계는 한시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아먹었다. 만일 내가 시간을 잘못 밀어 녀석의 일리바이가 멍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붉은 햇바다 바깥 마른 입술을 뺏고 입술을 베회하였다. 형사의 머리 위로 벽시계가 시계바늘을 흔들대고 있었다. 두시, 아나 한시. 머리 속이 얼기설기 그늘이 끼어듯 혼란스러웠다.

"한시쯤 들어온 것 같습디다."

"정확해요?"

형사는 슬픈 사건을 잘 조리질해 온 경력을 말하듯 내 밑에 매듭짓기를 중용하는 눈치였다. 나는 한참만에야 결심하듯 '에'라는 말을 불쑥 내뿜었고, 형사는 능숙한 타자실력을 과시하며 조서를 작성했다. 파들거대는 타자 소리는 찬소로 경쾌했다. 그 순간, 나는 동생이 살인자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낮에 소식을 전해 듣고서부터 계속해서 제발 녀석이 그 '누명'을 벗어나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녀석이 정말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내가 물귀신이라...' '어쩔 녀석이 어쩔놈 미소로 지으며 자신의 종족을 감출듯이 내뿜던 말이 떠올랐다. 어릴적부터 데려온 매가 떠나지 않던 손으로 흉방물을 옮겨주던 녀석에 대해 가슴 한구석에 응크리고 있던 애증의 그림자가 기어오 자리를 차지하고 일어난 느낌이었다.

"뭇말전에 물귀신으로 일컫던 적이 있어 보셔..."

형사는 조서에 마침표를 찍으며 일과를 끝낸 안도감에 군두셨던 신경을 누그러뜨렸다.

"질요로 보시는 아무래도 자살입니다. 그런데 그 패거리들과 부모들이 학생 동생이 한 것이 아니고는 하는 후에... 예전부터 터진목은 여러 사람이 죽은 것일겁니다. 흔하디 흔한 살인사건이죠. 흔하디 흔한 살인사건이죠."

"제 큰할아버지도 터진목에

를 맞았고, 콩밭에 잡초가 무더기로 자라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을 입에 담았다. 그러다 고모는 며칠전 오일장이 서는 음내에 나갔다가 패거리들과 어울려 오트바이를 타고 가는 녀석을 보았다고 했다. 녀석에게 기진맥진한 가족들은 녀석을 회색에 올리는 고모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를 보였다.

"그놈은 누굴 닮아 그런지. 쫄쫄..."

고모의 말소리는 비 속에 울

려져 갔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낚지 않아 꺼끌꺼끌해진 수염을 문지르며 말을 꺼냈다.

"성일이 젊었을 때 몸집을 그놈이 속해 달았어. 파죽하고 함께나 쓰는 품도 영락없이 지큰하루방이주."

할아버지는 또다시 당시 형님을 그리고 있었다. 큰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동생에게서 씨의 대를 받을 발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언제나 녀석을 혼저질 한번 내는 일이 없이 얼고 달래기에 급급했다. 언제부터가 할아버지는 어릴 때 보았던 그 빛바랜 형제 사진을 베갯머리에 두고서 가끔씩 빠질듯 들여다 보곤 하였다.

"우루루 파죽. 하늘을 받들고 싶던 물피마물은 천둥벼락소리가 되어 오슬오슬 떨어졌다. 전회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어머니가 부르나래 내게 달려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오 녀석이 경찰서에 있던 햄?"

"나는 어머니의 당혹스런 눈빛에 삼켰다.

"터진목에서 사람이 죽어선다. 니 동생 친구라네구나." 어머니는 떨쳐 주지 않았다. 항상 조미조미하게 서 있던 어머니가 가슴에 날벼락을 맞고 철퍼덕 쓰러진 것이었다.

나는 곧 버스를 타고 서귀포경찰서를 향했다. 심장이 간질간질하고 파다거렸다.

녀석은 고개를 꼭 숙인채 조사를 받고 있었다. 녀석의 뒷덜미가 짧게 깎은 머리를 빛내며 울절거렸다. 아예 터진목에서 보았던 녀석들이 가장자리에 놓인 소파에 앉아 나를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형사는 신경질 섞인 목소리를 동생에게 던지며 타자기를 때리고 있었다.

"왜 씨웃어?"

"성터러 어쨌 못했다고 욕을 하길래. 성이 나한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오가리만 헌대미심."

동생이 내 얘기를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말도 죽어? 이 세가?"

"난 안죽었습디다."

형사는 귀를 바라보는 수교 양이마냥 편지위를 넘겼다. "삼삼이가 나간 후 심판 좀 지나서 나들이 나왔습디다? 그리 고선 터진목까지 따라가 술에

우리말 알고 쓰시다

흔히 쓰이는 관용 어구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금도 짓도 할 수 없다: 나의 아갈 수도 플라설 수도 없다. 어찌해 볼 방도가 없다.

금을 놓다: 값을 부른다. 어떤 것의 수준을 평가하다. 나무를 베는 데: 나무를 베고 쉽게 충격을 받다.

난든적이 나다: 손에 익숙해지다.

너스레놓다: 남을 농락하며 고수다스럽게 맞는다.

똥통 빼다: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다.

말 살에 쇠 살에: 할당하지 않은 말을 되는 대로 지껄이다.

모가 서다: 성질이 기발스럽다. 날카롭게 모가 생긴다. 를 뿌린 듯이 한 자리에 모인 사람이 속연해지다.

본매가 있다: 본보기로 삼

다한 매가 있다: 무엇이든 한 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지는 법이다.

치갑고 내리 깔는다: 부녀자의 지나친 옷차림이나 사치함을 비유한 말.

아내 치갑고 내리 깔았군 그해

코에 걸다: 무엇을 자랑삼아 내세우다.

피친 한 볼 없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핏줄이 쓰이다: 혈연적인 친밀감을 느끼다.

김무봉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이사도라 던컨, 그녀는 스무살에 맨발로 춤을 추었다

이사도라 던컨 (Duncan Isadora 1878-1927) 미국의 무용가 고전발레의 제약을 탈피하고 내면의 표현을 추구하여 그리스도의 의상과 맨발로 자유롭고 영감에 찬 춤을 창조 한대무용의 선구자라 칭할 수 있다.

자유혼의 몸짓으로 그려낸 사랑과 예술 그녀의 스무살은 뜨겁고도 아름다웠다. 자유와 영감의 몸짓을 사랑했던 이사도라 던컨 — 그녀는 고전발레의 규격화된 기교를 거부하며 맨발의 춤으로 현대무용의 새 지평을 열었다. 생의 기쁨, 사랑의 슬픔, 때로는 절망까지도 뜨거운 영혼의 몸짓으로 그려냈던 맨발의 이사도라 — 무대에서의 그 열정처럼, 또한 사랑의 아름다움에도 몰두할 줄 알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가을속에서, 가끔씩 서성거리자는 스무살의 젊은 날 — 그 뜨겁고도 아름다웠던 그녀의 삶을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름다움이 있는 대학생활 — 아모레 순정진과 함께 하세요.

순정진은 피부미용, 피부과학, 피부보양기능을 향상시킨 진정비타민 인공성 피부진정용 저자극성화장품입니다.

• 전국 28개 종합병원 피부과와 공동개발

대평양화학



